

# 증시 박스권 횡보... 동학개미, 공모주·코인으로 이동하나

코스피 한달 넘게 박스권 장세 불안정 증시에 대안찾기 분주 일평균 반대매매도 28% 늘어 공모주·가상화폐 유입 증가세



코스피가 전일 대비 75.11포인트(2.45%)하락한 2994.98로 장을 마감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30.29포인트(3.23%)하락한 906.31, 원·달러 환율은 1.60원 오른 1112.2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국내 증시가 1개월 이상 횡보 국면을 보이자 '동학개미(국내 주식을 직접 사는 개인투자자)'들이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은 급감했다. 공모주와 비트코인 등 수익률이 높은 대체 투자처를 향해 자금이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박스권 증시...개미 반대매매 위험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5.11포인트(2.45%) 하락한 2994.98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 개인의 순매수액도 급감했다. 지난 1월 개인의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순매수 금액은 27조988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23일까지 2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은 7조49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증시가 조정장을 맞이하자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제 로 주식이 매도되는 반대매매 금액도

증가했다. 증권사는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 하락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식 반대매매 금액은 3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금액은 일평균 22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173억원)와 비교했을 때 27.74%가 늘었다.

### ◆대안은 공모주·비트코인?

증시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자 비교

적 수익률이 높은 공모주와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모주 열풍에 이어 올해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LG 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등 기업공개(IPO) 대어들의 상장이 잇따를 예정이다. 이달 들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

의 순매수 상위 종목 5위에 제약회사인 피비파마(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12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전자부품 제조 업체 솔루엠이 등장했다. 지난 2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피비파마 3270억원, 솔루엠 1420억원을 순매수했다.

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3개월 연속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과 달리 공모주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공모주 펀드에만 9261억원의 금액이 유입됐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는 다수의 대형 우량 종목 IPO가 대기하고 있다. 공모금액 기준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기 적기"라며 "여기에 공모주 청약 관련 제도 변경으로 직접 공모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균등배정을 선택해 청약하고, 공모주에 더 투자하고 싶은 경우 공모주 펀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모주 펀드는) 운용전략에 따른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어떤 운용전략으로 운용되는 공모주 펀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활발히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초 8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현재 개당 56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회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65%, 거래량은 119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회원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53%, 12월 63%에 이어 한달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24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실시간 인기 애플리케이션(앱)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비트코인 거래량과 선물미결제약정 규모가 늘어나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줄어 들고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서서히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인기... 400여곳 신청

주총 관련 입력사항 자동화 주주 인증방식도 세가지 지원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이 상장법인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

온라인 주총장은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가능했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을 진행하는 기업과 직접 이용하게 될 주주의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 오픈 첫해인 지난해 가입 기업의 두 배에 달하는 400여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특히 주총 관련 입력사항을 자동화해 그동안 기업의 주총 담당자들이 수기로 입력했던 주총관련 공시 등의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온라인 주총장 시스템으로 바로 전달된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총장 가입 기업이 원활하게 주총을 개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실행과 운영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을 이용했던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처음 진행하는 과정이라 익숙치 않았는데 전담직원의 도움을 통해 잘 진행했다"며 "이용법이 간편해 주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주위에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주주들이 온라인 주총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주인증과정에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Pass 앱인증' (3월 도입 예정) 세 가지 방식을 지원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췄다. 또한 간편 인증을 통해 주주 뿐만 아니라 비주주들도 해당기업의 주총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훈 삼성증권 한상훈 영업솔루션 담당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주총장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와 컨설팅 요청이 한층 늘었다"며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본사와 지역별 영업본부가 협업해 기업별 특화된 주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

## 코스닥협회, 장경호 신임 회장 선출

장경호 이노스첨단소재대표이사(사진)가 코스닥협회 제 12대 신임회장에 낙점됐다. 코스닥협회는 24일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해 신규 임원을 선임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올해의 키워드로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을 내세우며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코스닥시장의 내실 있는 발전, 뉴노멀 시대의 대응력 강화'를 중점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코스닥기업의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사업 추진 및 정책지원 강화 ▲회원의 기업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코스닥기업 임직원을 위한 분야별 실무지원 지속 추진 ▲



코스닥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코스닥기업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등 추진 ▲다양한 채널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을 선정했다.

김경수 앤씨앤 대표이사 등 4명이 신임 부회장,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이사 등 7명이 신임 이사로, 이재호 테스 대표이사가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장경호 신임 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고 협회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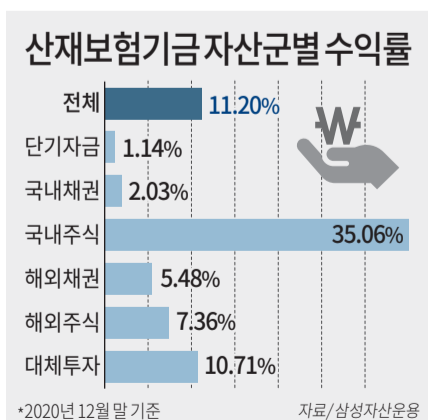
## 삼성자산운용, 22조 규모 산재보험기금 수익률 11% 기록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 주효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2조원 규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수익률이 지난해 11.20%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극심했음에도 리스크 관리와 목표수익률 초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 및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



부가 관리한다. 운용수익률 11.20%는 기준수익률보다 0.92%, 목표수익률과 비교하면 7.73% 초과하는 성과다.

기금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이 주효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자

산운용은 포트폴리오에 글로벌 자산군 편입과 대체투자 부문을 꾸준히 늘리며 수익 원천을 다양화했다. 또한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배분과 스타일 배분 전략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고용노동부와 중간운용사 사이의 긴밀한 협업 체계도 한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한 2015년 이후 삼성자산운용을 2회 연속 중간운용사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부문별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중간운용사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했다.

/송태화 기자

## 디지털 자산관리 '내 자산 바로보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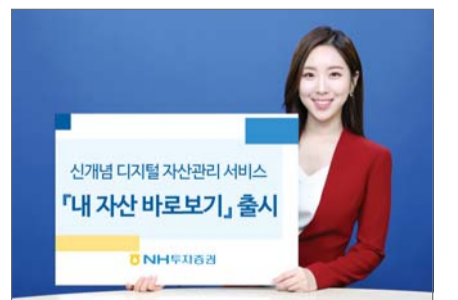
NH투자증권, 위험지표까지 한번에

NH투자증권이 신개념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 자산 바로보기'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 자산 바로보기는 단순 잔고 및 수익률 조회가 아닌 고객의 금융소득·양도소득, 절세계좌 현황, 그리고 보유주식의 위험지표 현황까지 한번에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득·양도소득현황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세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 대주주 여부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에서는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



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으로 나뉜다. 해외주식은 매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예상 양도세액을 계산해서 제공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어느 종목이 해당되는지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